

4년 만에 신입생 OT 열려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이수현 기자 dltngus011208@khu.ac.kr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신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과 새내기 배움터(새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이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신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은 지난 2월 24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이날 신입생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쓸데있는 대 학생활 잡학사전(물리학과 김상욱 교수) ▲경희, 예술을 만나다(후마니타스칼리지 조은아 교수) ▲디지털 대전환기, 나는 어디로 갈까?(경영대학원 김상균 교수) ▲챗GPT혁명과 함께 시작된 대학 생활: 알고, 즐기자 AI!(경영학과 이경전 교수) 등의 강연을 진행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는 총 학생회(총학) 주관으로 새터가 진행됐다. 지난 2월 17일 외국어대학(외대) 한누리소극장에서 진행된 국제캠 총학 새터에서는 ▲총학 소개 ▲학사안내 ▲학교생활안내 ▲동아리공연 ▲캠퍼스투어 등이 이뤄졌다.

OT는 지난 2월 10일부터 27일 사이에 단과대학(단과대)별로 이어졌다. 단과대에 따라 학교 내·외부에서 2일 내외로 ▲대학생활안내 ▲캠퍼스투어 ▲학과별시간 등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입



신입생들이 OT에 참여한 모습이다. (사진=정경대학 학생회 제공)

학을 환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체로 OT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졌지만, 일부 단과대 OT에서는 강제 참여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영대학과 이과대학(이과대), 정경대학(정경대)은 OT 사전에 ‘주량 팔찌’를 배부했다. 음주를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 술을 권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취지다. 정경대 김동현(미디어학 2021) 학생회장은 “주량 팔찌를 비롯해 사전 장기자랑 신청 제도를 통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전에 개인 특이사항을 조사해 비건식과 디스크 환자를 조사해 좌석을 따로 마련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과대 OT에 참여한 신입

생 장제훈(지리학 2023) 씨는 “주량 확인용 야광팔찌로 선배들뿐만 아니라 신입생 서로서로도 팔찌를 보며 조심할 수 있어 좋았다”며 “OT 동안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학교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

반면 외대에서는 장기자랑 프로그램 강제 참여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외대 OT에 참가한 재학생 A 씨는 우리신문을 통해 “과 학생회는 원하는 사람의 자원을 받아 장기자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과에서 한 팀은 무조건 나와야 하며, 지원자가 없을 시 신입생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학생과 과 학생회 사이에 다툼이 있

었으며, 신입생들은 눈치를 보며 전원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학생회는 결국 장기자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대 학생회 박유성(중국어학 2018) 회장은 “OT 당일에 과악했을 때 7개 중 6개 학과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분위기는 결코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에브리타임 글을 보고 논란을 처음 접했으며, 당시 현장에서 논란에 대해 바로 확인했으나 과 학생회장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면서도 “이번 일을 강압적으로 느꼈고 그로 인해 힘든 사람이 있었다면 저의 잘못이 맞다고 생각하며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2면에서 이어짐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2022년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 교재를 PDF로 변환해 사용하는 ‘복스캔 현상’이 확산되면서 대학가의 불법 복제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디지털 복제는 개인이 쉽게 만들고 교환이 가능해 그 특성상 정확한 통계나 피해를 파악하기 어려워 출판사가 적절히 대응하거나 보상금을 분배받기 힘들다.

실제로 우리학교 출판문화원은 지난해 26건의 교재 불법 복제 거재를 적발했다. 출판문화원은 “해당 학생들의 인적 사항은 과악했지만,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처벌하지 않았다”며 “불법 복제물 유통과 구입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고의·반복적으로 유통한다면 관련 기관과 논의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재 불법 복제 거래로 인해 출판문화원에서 출판하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재의 판매량은 2019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판매 교재에는 『인간의 가치 탐색』, 『세계와 시민』, 『성찰과 표현』, 『주제연구』, 『나를 위한 글쓰기』, 『대학 글쓰기 세계와 나』가 있다. 다만 출판문화원은 “2023년에 『인간의 가치 탐색』 개정판이 출간돼 교재 판매량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판문화원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재의 전자책 출간을 준비 중이다. “전자책은 디지털 유통과 관련된 저작권 협약이 필요해 저작물의 원저작자 및 출판사와 저작권을 협의하고 있다”며 “협약이 완료되면 온라인 서점을 통해 전자책을 유통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연구회

2023년 장학생 모집 공고

인류의 평화와 우정의 확대, 이웃돕기와 사회문제 해결 등 평화와 정의를 위한 활동을 장려하여, 조영식과 이케다 다이사쿠의 사상·정신을 배우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생(별칭: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펠로우)을 선발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개요**
1. 주관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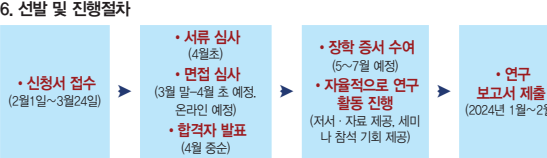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연구회
2. 사업 명

작은 장학회 사업(제3기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펠로우 육성 사업)
3. 선발인원

2명 내외
4. 장 학 금

1,000,000원(개인별)
※다른 기관의 장학금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
5. 기타 혜택

조영식 및 이케다 다이사쿠의 주요 저서·자료 제공
연구회가 주관하는 관련 세미나·특강 참여 기회 제공
학습·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기수별 펠로우 활동 참여 기회, 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 제공
우수 보고서는 연구회가 발간하는 책에 게재할 수 있음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장학금 신청**
1. 신청기간
- 가.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수) ~ 2023년 3월 24일(금)
나. 신청방법 : 신청서류(하단 내용 참조)를 이메일로 접수
다. 접수주소 : cipeace2050@gmail.com(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연구회 사무국)
※ 마감일(3월 24일 24시)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됨.
※ 오프라인 서류는 받지 않음. 방문 접수도 없음.
2. 신청자격 (아래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함)
- 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적 중인 재(전)문대 포함, 휴학생 및 입학 예정자 포함.
나. 인류의 평화나 우정의 확대, 이웃돕기나 사회문제 해결* 등 평화와 정의를 위한 활동경험이 있는 자(17가지 이상의 활동 경험).
※ 사회문제 해결: 환경보호 활동, 인권보호 활동, 교육·복지 봉사활동, 문화 보급 활동, 이타적인 경제·산업활동,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촉진한 활동 등
다. 조영식 및 이케다 다이사쿠의 사상·정신을 학습할 의욕이 있는 자
※ 신청 시점에서 관련된 연구 실적이나 지식의 유무는 심사와 무관함. 의욕을 중심으로 심사됨.
3. 신청서류
- 가. 장학금 신청서 (한글 파일로 송부함)
나. 서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송부함)
※ 확인·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출력 후 사인을 하고, 스캔한 파일을 송부함.
다. 활동 실적 증빙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함.
※ 예: 활동인증서, 경력증명서, 공식 보고서, 보도자료, 사진 자료 등
※ 제출이 필요한 증명서에 관해서 신청서를 첨부로 연구회가 합격자에게 통보함.

- 라. 대학·대학원 재적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등)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함.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필요한 증명서를 합격 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학금 선정 취소 및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해야 함.

- 장학생 의무사항**
1. 장학 증서 수여식 참석 : 2023년 5월~7월(예정)
2. 연구 보고서 제출 : 2024년 1~2월
※ 분량과 형식: 한글 파일 기본 형식으로, A4 용지 10~20페이지 내외를 원칙으로 함.
※ 내용: 다음 유형 중 합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함(합격 후 결정).
① 독 후 감 형 : 조영식 및 이케다 다이사쿠의 주요 저서를 최소 1권씩 완독 후 독후감 작성.
② 학술논문형 : 조영식 또는 이케다 다이사쿠의 사상·정신을 주제로 하거나 이를 활용한 학술논문.
③ 기 타 형 :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와 관련한 주제로, 연구회와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기관이나 학교·수업 등에 제출한 기존 리포트나 논문을 중복·수정 제출할 수 없음.
※ 우수 보고서는 연구회가 발간하는 책에 게재할 수 있음.
3. 연구 발표 : 상황에 따라 실시 여부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연구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특강, 교류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권장함.

신청 문의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연구회 사무국
이메일: cipeace2050@gmail.com / 전화: 010-6244-3973